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91호 현대불교  
2010년 7월 7일(음 5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 자기를 리드하는 자기의 원동력에 진짜로 감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 저희들을 항상 밝게 이끌어 주시는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십 년 전쯤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는데 스님의 이끄심을 따라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부디 법체 강건하십시오.

☞ 이 마음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신다면 여러분도 다 남을 위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허혈을 해서 죽게 됐는데 병원엘 가니까 도무지 그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미국에서요, 한국으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관해라. 알았다.” 그랬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와서 머리를 깎아서 신을 삼아 드려도 그 신세를 못 갚겠다고 하더군요. 애 다섯을 두고 자기가 죽었더라면 어떡할 뻔 했느냐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죠. “이것 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냐. 너의 전전질과 내 전전질이 한데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들어왔을 뿐이야. 이 도리 알아야 해. 못났든 잘났든 내가 없어도 아니 되고 상대방이 없어도 안 되는 것을 말해서 상대성 원리라고 해. 그러나 우리의 참다운 참(眞)은 누가 해 줬다, 고맙다 이러기보다도 고마우면 자기 주인공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자기를 운전하는, 자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의 원동력을,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을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나를 만날 수도 없고 종교라는 것도 없고 세상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만이 귀중한 겁니다. 나부터 귀중한 걸 알고 나부터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나부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아마 자기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벗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교는 참 알기가 어려워.”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불교는 진리입니다. 그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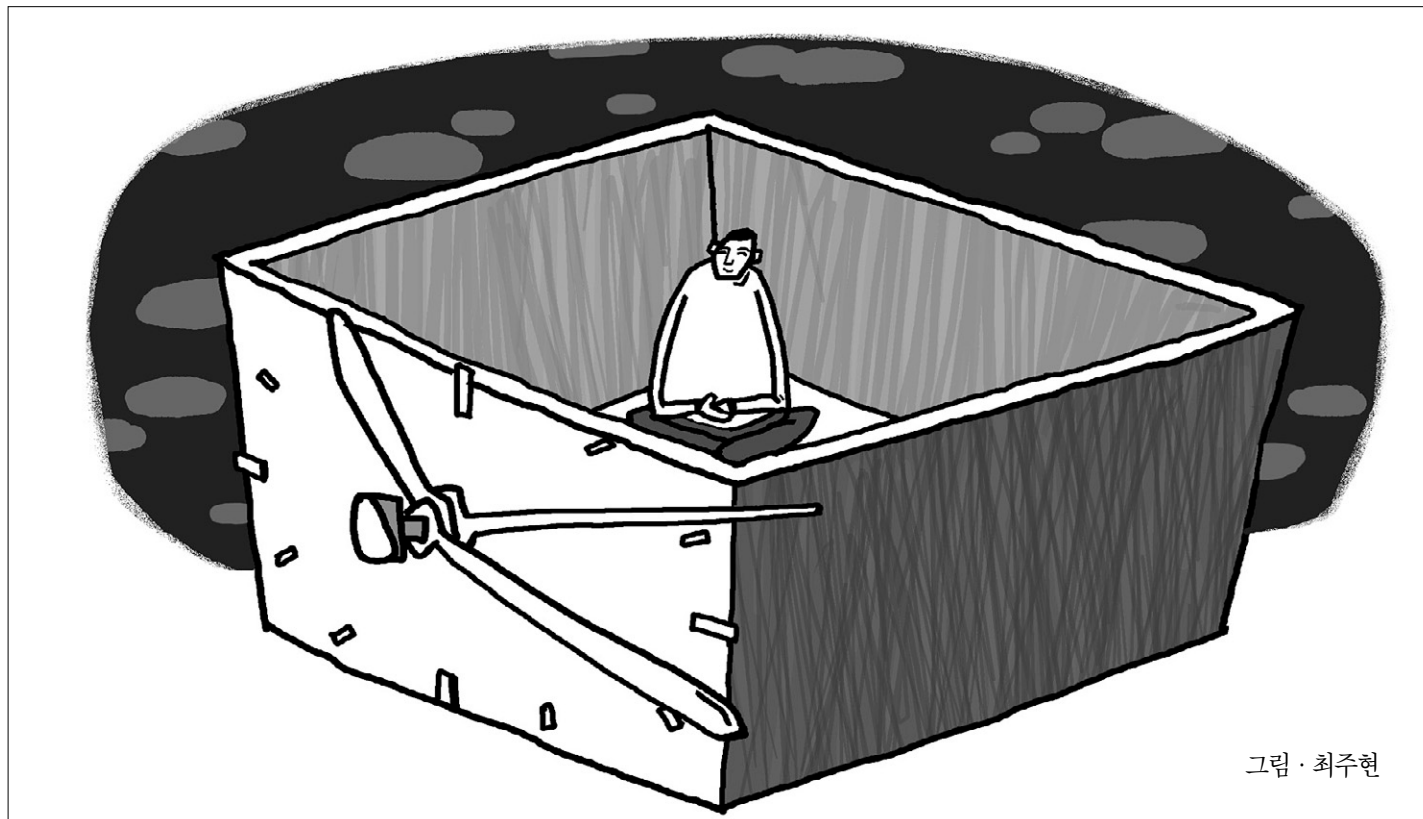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살고 나가는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잠을 자고 서서 다니고 또 앉아 있고, 이 네 가지를 포함해서 본다면 그대로 참선입니다. 공기주머니가 만약에 버스라면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복닥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 시간과 공간은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물질도 돌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땐 정작돼 있는 걸로만 보지요. 거꾸로 섰든 바로 섰든 우리는 바로 서 있는 것 같죠? 그러니 생각하면 개미의 살림이나 우리의 살림이나 수천수만 그 천차만별의 삶이나 뭐가 다를까? 좀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그래서 나를 똑똑히 보라. 이랬습니다. 각자 말합니다. 각자 자기를 보라. 자기 몸뚱이 속에 얼마만큼 생명들과 모습들과 의식들이 들어 있나. 내가 밥한 그릇을 먹고 물 한 컵을 먹을 때 내가 먹는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몸뚱이도 지구와 같고 우주와 같고 세계와 같은 겁니다. 몸뚱이 하나가. 모든 분야에서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누가 먹는 것입니까? 그 육신 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먹으며 우리는 심부름을 해 주는 바로 심부름꾼이다 이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심부름꾼이 따로 없습니다. 안에서든 그거를 쥐어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에서도 그렇게 심부름을 해주지 않는다면 안에서 작용을 못해 줍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한마음입니다.

그러니 내가 따로 없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버지가 됐거나 어머니가 됐거나 한 가지 정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엄마!” 하면 엄마가 되시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하면 금방 자동적으로 그냥 아내가 되시죠? 남편을

막론해 놓고 그렇죠. 그러나 그뿐인가요?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애, 아무개야!” 하면 아들이 되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나중에 아들이 되고 남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동시에 그냥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실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고 살아나가는 게 과학적이며 바로 천체물리학적이기도 하고 천체의학적이기도 하고 천체 과학,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도라는 것은 내가 남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줄 수 있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수 있어 아량이 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벗어나는 대장부라 일컬어지는 사람이라면 그쯤은 돼야 된다는 얘기도.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너무 욕심부리는 걸까요?

☞ 지금 저는 애들하고 셋방살이를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

꾸 일이 안 풀립니다. 별로 약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 아니, 애들하고 살면서 집이 없는데 집 걱정을 안 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세상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는 관리인이라는 것만 아세요. 그 주인의 시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래나, 돈을 갖지 말래나, 집을 갖지 말래나. 그 말만 하면 알아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서 ‘약하게 살지 마라.’ 이런 것은 약이 별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약하다고 하는 것도 약한 것이지만은 자녀들하고도 약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공부 잘 못하거나 이러면 공부 공부 공부, 부모가 그냥 ‘공부 공부’ 이러기만 한다면 자식들이 그걸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공부 공부’ 하지 마라. 공부에 진저리가 나서 들어오면 “어디서 배고프지 않게 될 먹었느냐. 피곤하지 않느냐. 배 고프면 뭘 좀 먹고, 피곤한데 쉬어라.” 하고 거죽으로 말은 부드럽게 해 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재, 공부 좀 열심히 잘하게끔, 마음 잡아서 잘하게끔 당신밖에 해 줄 수 없.’ 하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아라 이겁니다. 그래야 이득이 있고 공력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이 말로다가 그냥 다르르르 해 버리고 냉랭하면 눈치 봤다가 그냥 또 달아나가요.

그러니 점점 점점 속이 씩이 어려죠. 그와 마찬가지로 약하다는 것이 별난 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남한테 무조건 잘,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란 말입니다. 공을 칠 때 보면 공이 나한테 돌아오지 절대로 그 벽에 딱 파묻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걸리지 마시고,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인제는 내가 관리인만 되겠다. 그저 마음의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거고, 또 집 없다

☞ 26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열역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행복 -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사)한국불교 조계종 입증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부처님의 해명을 받들어 수행정진하고 있는 본종단은 문공부등록 141호 사단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수행정진, 화합하는 본종단 중도로써 초빙코저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본 종단과 유사한 단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총무원장 자화**  
(사) 한국불교 조계종 자화정사

■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225번지  
■ 연락처 : 010-3262-1005

### 우란분절(백중) 지장경 산림법회 및 자비도량 참법기도

지옥중생이 남아 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과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영험도량에서 있는 **천도재·산림법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법사 : 석 혜승 스님 (전, 해인사 율원장)  
◆ 일시 : 불기 2554년 5월 25일 (양, 7월 6일) ~ 7월 15일 (양, 8월 24일)  
◆ 조상, 태아령 영가 천도 - 오전 10시 자비도량 참법 기도  
◆ 지장경 산림법회 - 오후 2시

금강경으로 장엄한 법당, 시왕(명부)을 모신 지장기도 영험도량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중리 1077-6번지

**수정사 성천 합장**  
052)225-0068, 0177